

06

2023. 356호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노개고호 푸른장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음을 보듬고,
세상을 담아 행복을 전합니다.



뜨개고을 푸른장수

2023년 6월 356호

최훈식 군수 인사말 04

새로운 장수

[기획특집] 민선8기 취임 1주년 06

[사람을 모으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지역 주민들이 만든 소소한 축제 10

- 장계면, 논개골 낭만 벚꽃축제

- 계남면, 장안산 봄나물 축제

- 축제는 계속된다

[소개합니다1] 언덕 위 산양목장 14

도약하는 장수

[미래를 이끌다] 장수군 미래 성장동력, 스마트팜 18

[장수 어때? 소소한 여행] 걷기 좋은 길, 장수 승마로드 20

[소개합니다2] 천천면 하늘내 행복나눔터 24

[가야역사] 역사 맛집 장수, 서 말인 보석을 꿰어야 할 때 26

행복 장수

[지금, 우리 마을은] 30

- 읍·면 소식 31

[의회 소식] 제9대 장수군의회 소식 34

[사진으로 만나는 장수] 38

소식지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고향소식 받아가세요. 이사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 우 편 전북 장수군 호비로 10 장수군청

· 전 화 기획조정실 063)350-2068

· 발행일 2023년 6월 (통권 제356호)

· 발행처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 사 진 전수환

· 메 일 jangsu7@korea.kr

· 발행인 장수군수

· 편집인 조용호, 김성룡, 김현경



사랑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수 최훈식입니다.

장수군민들의 선택을 받아 군수에 취임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군민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지만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었기에 가슴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건설’에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수군의 발전을 위해 성장동력을 만들고 군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한 1년이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기반을 다지고,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밑바탕을 다지는 1년이었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미래농업의 초석을 다졌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농어촌 상수도 물 복지 확대사업 등 군민들의 안정적인 영농생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중이었던 천천하이패스IC 건립, 장수~임실 도로시설개량공사 등 장수군 발전을 견인할 SOC 사업을 가시화했으며, 누리파크와 논개사당, 의암호를 중심으로 동촌리고분군, 뜰봉샘 등을 연계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장수군 대표관광지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이 장수군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며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다가오는 미래는 더욱더 혁신해 행복 장수로 가는 길을 공고히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이뤄나가야 할 과제들이 매우 많습니다. 늘 그래왔듯 공직자들을 하나로 화합해 우리 아이들에게는 희망을,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어르신들에게는 촘촘한 복지를 주고, 나아가 군민 모두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장수군을 만들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그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장수군수 최 훈 식



장수군 민선8기 최훈식 군수 취임 1주년

“군민 중심 · 행복 장수 반드시 건설하겠다”

최훈식 장수군수가 이끄는 장수군 민선8기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를 군정 목표로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씬 없이 달려온 지난 1년.

최 군수는 장수군이 미래로 나아가고, 군민의 소중한 꿈과 희망이 이뤄지는 행복한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지난 1년 장수군 곳곳을 누비며 군민들과 소통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행안부 적극행정, 혁신행정 평가 등에서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을 받은 것은 군민들의 열렬한 응원과 위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장수군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장수군에 불어온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함께 살펴보자.



▲ 장수지역활력센터 직원 간담회



▲ 산림소득 임산물 재배 사업장(두릅농가) 방문



▲ 노인일자리 발대식 및 활동교육

장수군 스마트팜으로 미래 100년 성장기반 구축

최훈식 장수군수는 장수의 미래는 농업에 있다고 생각하며, 취임 초부터 미래 농업을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특화해 발전시키며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가장 먼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 농산물 가격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며, 농업경영의 안정적 기틀도 마련했다.

군은 총 663억원(기금 120, 국비 159, 도비 156, 군비 228)을 투입해 8ha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목표로, 1단계는 2024년까지 두산리 일원에 4ha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2 단계로는 올해 4ha 규모의 사업부지를 선정 한 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스마트팜에 도전하고 싶지만 온실 조성 등 초기비용에 드는 막대한 예산이 부담돼 농업을 포기했던 청년 창업농들이 스마트팜을 적정 임대료로 임대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이어가고, 재배역량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고령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 문제가 매년 심각해짐에 따라 농가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농민들의 삶까지 위협받고 있는 문제 해결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총력과 심혈을 기울여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선정 되는 쾌거를 이뤄 올해 5월부터 농가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일손 지원을 하고 있다.

더불어 결혼 이주민들의 가족과 친척으로 구성된 외국인 근로자와 JOB센터를 통해 모집한 도시민 유휴인력도 농가에 배치해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들이 적기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 계남면 딸기재배농가 방문

군민에게 활력이 되는 정책! 살고 싶어지는 장수

지난해 장수군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농촌공간 정비사업,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사업 등 각종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2023년 국가예산으로 전년 대비 557억원(국도비 등)이

증가한 1,197억원(국도비 등)을 확보하는 등 행복 장수 건설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2025년까지 농어촌 상수도 물 복지 확대사업 (총사업비 60억원, '23년 12억원)을 추진해 농촌

지역 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수군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42억원)으로 도시가스 수준의 생활 편의를 제공해 장수군에서 취약한 에너지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33억원)으로 기존 화석연료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클린 장수’를 만들고, 주차환경 개선사업(87억원)으로 장수중심지 주차타워와 장계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군

환경을 개선해 주민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장수~장계 국도(19호선) 도로시설 개량공사(335억원, 2022~2025)를 통해 군민은 물론 장수군을 방문하는 도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산서면 농촌공간 정비사업(154억원, 2022~2026) 추진으로 농촌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시설 이전 및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농촌다움을 복원한다는 구상이다.

공존하는 장수의 문화관광으로 문화관광도시 장수 건설

2023년 최우선 과제로 장수군 대표 관광지 조성과 100만 관광객을 유치할 다짐한 최훈식 군수.

최 군수는 “해발고도 500m 이상의 청정지역 장수군의 태고적 자연의 아름다움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청정자연에서 체험을 즐기고 힐링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아 갈 수 있도록 장수누리파크 농촌관광 활성화사업, 유아숲 체험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자원으로 매우 큰 가치가 있는 뜬봉샘 생태공원 내 12,000여 평 규모의 자작나무 숲 아래에 꽃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고 뜬봉샘 생태공원과 연계해 청정자연 속 힐링할 수 있는 ‘쉼’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계남면에 위치한 벽남계 주변을 정비하고 둘레길을 조성해 다시 가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으로, 여기에 작년 12월에 개관한 꿈꾸는 예술터를 연계해 지역 문화예술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더불어 다가오는 7~8월 중 천혜의 계곡을 활용한 ‘쿨밸리 페스티벌’을 새롭게 개최해 여름철 장수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계곡과 문화예술 공연을 융합한 볼거리·즐거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상품권 지원과 숙박 연계를 통해 체류형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 장수누리파크



▲ 경로당 방문



소외와 차별 없는 교육, 희망을 키우는 장수

민선8기 장수군은 아이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고, 도시의 아이들과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예산을 거의 2배 가까이 확대했으며, 학교교육지원사업을 12개 사업(7억원)에서 17개 사업(12억원)으로 확대해 기존 교육사업비 추가 확보와 동시에 5개 신규 교육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또한 5월 장수군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의 교육을 위해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 관내 각 교육기관에서 개별 운영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을 통합·관리해 예산 누수를 차단하고 효율적인 교육 지원

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교육과정 중심이 아닌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 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학생들의 문화감수성 함양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이 신설돼 타지에서 생활하는 장수군 출신 대학생들에 대해 주거비 지원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비 걱정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없었던 대학생들까지 학업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드디어 3년 여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엔데믹 시대가 열렸다. 엔데믹 시대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떠나지 못했던 여행을 떠나기 위해 국·내외 관광지를 찾고 있는 가운데, 장수군에서도 많은 관광객에게 장수를 알리기 위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가득한 축제들을 개최했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자연환경과 특산물 등을 활용한 지역축제, 마을축제를 직접 기획·추진하며 의미를 더했다.



장계면, 논개골 낭만 벚꽃축제

4월 13일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23년 논개골 낭만 벚꽃축제'가 열렸다.

올해 평년보다 빨라진 이른 개화시기에 맞춰 개최된 '논개골 낭만 벚꽃축제'에서는 주민작품(공예 등) 전시, 민속 체험프로그램(떡메치기 등),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논개생가지 투어, 다양한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함께 진행돼 많은 관광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계남면, 장안산 봄나물 축제

장계면에 이은 두 번째 지역 축제, 계남면에서 개최한 '장안산 봄나물 축제'. 계남면은 4월 29일 백화마당 일원에서 제1회 장안산 봄나물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에서는 청정자연 환경을 갖춘 계남면 장안산 일원에서 나오는 지역 특산물인 봄나물로 전 부치기, 쭈 인절미 만들기 등의 체험프로그램 등이 이뤄져 먹을거리 가득한 축제가 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더해 두릅, 고사리, 취나물, 달래, 미나리 등 다양한 산나물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특산물을 할인 판매해 축제에 활력을 더했다.





축제는 계속 된다!

장계면과 계남면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를 열었다면, 다음은 번암면과 계북면이다. 번암면에서는 매년 7월 물빛 공원에서 '물빛축제'를 개최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한 여름 무더위를 피해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열고 있다.



번암
물빛축제

이어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 동안은 계북면에서 제1회 계북면 참샘골 토마토랑 수박축제가 열린다.

평균해발고도 500m, 높은 일교차를 가진 환경 덕분에 계북면에서 자란 토마토와 수박은 과육이 단단하고 과즙도 풍부해 많은 도시민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특산물이다.

계북면은 지역 대표특화작물인 토마토와 수박을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많은 관광객에게 즐길거리와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특산물도 홍보해 농가 소득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천천면에서는 맑은 금강에서 나는 다슬기를 주제로 한 '제1회 금강 다슬기 축제'가 열린다. 천천면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0월에는 산서면에서 희망무지개 축제가 개최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희망무지개축제는 지역의 대표 가을축제로 지역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호응이 매우 높다.

사시사철 즐길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장수군. 언제나 다양한 축제를 만날 수 있는 장수군으로 올해는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번암
물빛축제



논개고을
남만 벚꽃축제
개막식



장안산
산나물축제




장수군은 나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준 기회의 땅


산양들과 함께 뛰어노는 삶...


언덕 위 산양목장

김훈 대표(38)

 산양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삶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고소득까지 보장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반려견 대상

 경쟁 심하지 않아 빠르게 성장 가능

도시생활에 지친 이들은 누구나 한번쯤 귀농·귀촌을 꿈꾼다. 매년 많은 이들이 귀농·귀촌을 결심하지만 선뜻 도전하지는 못한다. 귀농 귀촌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특히 귀농 귀촌을 했을 때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요 수출국들이 한때 농산물 수출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식량 자급률이 46.7%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됐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절벽시대에 접어든 우리 농촌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은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와 유튜브에 '청년 귀농'과 관련된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청년이 경쟁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벗어나 시골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이에 장수군에서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비롯해 농군사관학교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멘토-멘티' 등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 와 청년 농부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산양과 자연이 준 행복, 청년 농부라 행복해

"농업도 경영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귀농을 결심했을 때 먹고 살 정도의 소득은 벌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 때 귀농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수군 계남면, 장안산으로 향하는 언덕 위에는 특별한 목장이 있다. 벌써 이곳에 자리잡은 지 5년째. 언덕 위 산양목장 김훈(38세) 씨는 장수군으로 귀농을 결심한 후 매일을 바쁘게 보내고 있다. 서울이 고향인 김 대표는 2018년 도시를 떠나 이곳에 터를 잡았다.

"귀농을 결심하고 참 많은 곳을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귀농박람회에서는 장수군에 대해 우연히 듣게 됐는데, 지대가 높다는 것, 산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곳일까 궁금증이 생겨 캠핑 삼아 여행을 왔어요. 말 그대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가장 중요한 물이 많다는 것 등등 많은 조건들에 반해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김 대표는 현재 산양 20마리 가량을 키우고 있다. 그는 유기 인증을 받은 녹초지에서

유기 사료를 먹이며 언덕 위에서 자유롭게 산양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동물 관련 전공을 하며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김 대표. 그는 동물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낙농과 산양업에 관심을 갖던 중 산양을 키우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귀농에 뛰어들었다.

그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반려견을 위한 산양유다. 최근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트렌드에 맞게 반려견들에게 건강한 산양유를 제공하기 위해 그날그날 신선한 산양유를 유축해 유제품으로 생산해내고 있다.

"처음에 제가 이곳에서 반려견 전용 산양유를 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다들 3년 안에 털고 나갈 거라고 장담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물들과 함께 이곳에서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있는 소득도 낼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100%
유기농 목초
산양유



산양유, 무엇이 다를까?

김 훈 대표의 산양유는 이른 봄부터 늦가을 까지만 생산된다. 김 대표의 '언덕 위 산양목장'은 생산부터 가공, 포장, 배송까지 이뤄지는 단일목장으로 김 대표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한 병, 한 병 정성을 담은 수작업 산양유를 공급하고 있다.

이곳의 산양들은 마리당 330제곱미터 이상의 영양 가득한 유기농 목초를 섭취한다. 이렇게 건강하게 돌보며 얻은 산양유에는 비타민(A, E, B3, B6, B12)과 미네랄(아연, 인, 철, 마그네슘, 엽산, 구리 등)이 풍부하며, 공맥리놀렌산(CLA),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돼 건강 회복과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CLA와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돼
건강회복과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산양유!

“귀농을 한다면 본인이 생산하는 생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 또한 이 산양유를 따로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SNS와 스마트스토어였습시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홍보해 지금의 단골들을 만든 거죠.”

생산물이 아무리 좋아도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김 훈 대표. 그는 '청년농부'답게 SNS를 적극 활용해 산양유를 홍보했다. 그 덕분에 지금과 같은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해졌으며, 매일매일 유축한 산양유를 당일 모두 판매하고 있다.

귀농, 알았다간 큰 코 다쳐... 철저한 준비 필요

“자연 속에서 눈을 뜨고, 한적하고 여유로운 시골 생활을 꿈꾸면서 귀농을 결심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길 바랍니다. 그동안 도시에서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철저한 준비와 함께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도전해야 하는 것이 귀농입니다.”

김 대표는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상에서 빨리 벗어나 현실을 봐야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내 일에 대한 확신과 준비만 되어 있다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많은 분들이 시골에서 답답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저에게 잘 사는 삶이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는 동물들과 서로 교감하며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게 제게는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언덕 위 산양목장을 고객들을 위한 쉼터로 만들고 싶다는 김 훈 대표.

“일상에 지친 제 고객들이 이곳을 찾아 와서 쉬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언덕 위 산양목장을 활용해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쉼의 공간으로 만들어 산양도 직접 보고, 체험프로그램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쉼의 농업'을 실천 해보고 싶습니다.”

장수군 스마트팜... 잘 사는 농촌, 행복한 농민 실현 미래농업 팔 건었다

첨단 ICT 무장한 장수형 스마트팜...
농업 성공시대 이끈다

급변하는 이상기후에 대비, 스마트팜이 해답될 것!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전문가 육성
“청년 농업인이 미래다”

레드연구소 설립, 농군사관학교 운영 등
“부자농촌 기반 마련”

인공지능(AI), 챗GPT,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혁신적인 변화가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 생활 전반에 확대되고 있다.

농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기후변화와 각종 자연재해, 불안한 국내외 경제시장 등 농업이 처한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갈수록 상승하는 농자재비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스마트팜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장수군은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 스마트팜을 가장 앞서 이끌어가고 있다.

장수군은 일찍이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육성을 민선8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잘 사는 농촌, 행복한 농민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라북도 동부권 스마트팜 최적지, 장수군

장수군은 소백산맥의 종점인 동시에 노령산맥의 시작점으로 군 면적의 76.6%가 해발 500m 이상인 고원지역이다.

특히 동서남북 모두 산악이 중첩돼 있으며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분기로 덕유산, 장안산, 팔공산을 배경으로 한 지하자원과 임산자원이 풍부하며, 섬진강과 금강의 상류 수원을 이루고 있어 그야말로 천혜의 청정 환경을 갖춘 곳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장수군의 평균기온은 전라북도 타지역의 평균기온보다 낮아 여름철 기온이 30도를 넘는 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한여름에도 열대야가 거의 없고, 여름에도 벌들이 수정을 할 수 있어 토마토 생산이 가능하다.

더불어 장수군은 대한민국 중부에 위치해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과 연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리적 여건 또한 갖추고 있다.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2010년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던 장수군은 2022년 고위험지역에 진입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심화로 지역 활성화마저 저하되며 지역 소멸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장수군은 임대 스마트팜 조성, 농군사관학교



장수 스마트팜 부지

운영 등 농업 활동의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해 청년층 중심의 인구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정부는 농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전환하고 청년층을 이끄는 스마트농업을 활성화 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인구유인책이 필요한 장수군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켜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수 농업기술센터 파파야

청년농업인이 미래다, 청년 농업 전문가 육성

스마트팜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 장수군은 스마트팜 조성과 동시에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만들 계획이다.

스마트팜은 청년들이 창업하기에 높은 초기 투자비와 재배관리 및 경영노하우 부족으로 실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장수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창업보육 과정을 이수한 청년들에게 재배경영 공간을 이용해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의 청년 임대농들이 그룹별 공동경영을 통해 재배경영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장수군 기후, 토질 등 환경에 맞는 재배 기술을 개발해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신소득 품목을 포함한 읍면별 특화작목 육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장수군은 레드푸드 육성을 위한 레드연구소 설립, 청년농 유입을 위한 장수 농군사관학교 건립·운영 등 장수군을 100년 먹거리가 있는 부자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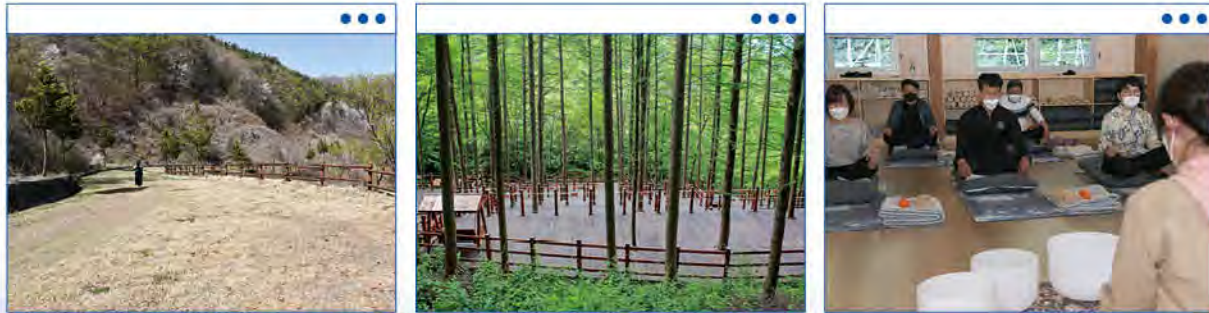


스마트팜 업무협약식

“자연 속에서 함께 걸어요” 장수 승마로드

지난 4년간의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많이 변화시켰다.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여행하기보다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바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힐링 여행지를 찾는 이들이 늘어났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봄 여행지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 딱 맞는 길이 있다.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걸을 수 있는 길! 장수군 승마로드가 바로 그곳이다.



말길 따라 도보여행, 승마로드

평균 해발고도 500m, 면적의 75%가 산림으로 둘러싸인 장수군은 전라북도 동부산악지역에 위치해 일교차가 크고 해발고도가 높아 여름에도 열대야가 없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사랑하며 전국 8대 종산 중 하나인 장안산이 있고, 금강의 시작점, 뜰봉샘이 있는 그야말로 청정자연을 그대로 갖춘 곳이 바로 '장수'다.

장수는 청정자연뿐만 아니라 말이 유명한데, 장수군 장계면에는 내륙 최대 규모의 경주마 육성지인 'Let's run Farm'이 위치해 있다. 육성목장뿐만 아니라 장수군에는 다양한 승마 관련 시설이 있는데, 장수읍 노하리에 위치한 장수승마체험장이 승마로드의 시작이다.

이곳 장수승마체험장을 시작으로 천천면 월곡리에 있는 장수 승마장까지 연결돼 있는 10Km의 거리가 '장수 승마로드'다.

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걷는 길

장수 승마로드는 10Km의 구간이 잔디로 포장돼 있다.

이 길은 승마 전용도로지만, 도보여행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걷기 좋은 길로 소문나 있다. 도보로는 편도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중간중간 휴식공간과 포토존, 전망대 등이 설치돼 있어 걷는 내내 지루하지 않게 여행할 수 있다.

장수 승마로드의 가장 큰 매력은 푸르른 잔디밭 길인데, 잔디밭이 잘 가꿔져있어 땅의 기운을 받기 위해 맨발로 걷는 이들도 많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속에 길을 만들어 언제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길 주변 곳곳에서 계절별 피는 야생화와 다양한 식물들을 만날 수 있어 꽃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또한 구불구불한 산속 길을 자전거로 달리는 묘미도 뛰어나 최근에는 자전거를 좋아하는 이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



장수승마장

장수 승마로드 끝 장수승마장. 관람석 432석 규모의 실내마장과 456석 규모의 실외마장, 마사 10동, 마방 238칸을 갖춘 장수승마장에서는 각종 승마대회와 외승, 승마 등을 즐길 수 있다.

지난해 8월 개최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를 비롯해 전국생활체육 승마대회, 대통령배 전국승마대회 등 다양한 전국승마대회가 장수 승마장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4월 14일부터 20일까지는 2023년 춘계 전국승마대회가 개최돼 전국의 200여 명의 승마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뽐냈다.



숲이 있는 곳, 치유의 숲

‘산림치유’는 요즘 각광받는 힐링 시스템 중 하나로 산림을 매개체로 심신의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해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좋다.

무엇보다 단순히 산림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숲의 향기, 숲에서 나는 소리, 숲에서 나오는 맑은 공기, 그리고 숲에서 나는 음식 등을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매우 효과가 좋아 많은 이들이 찾는 관광 상품이다.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에 위치한 치유의 숲 또한 단순한 휴식을 넘어 치유와 힐링을 함께 할 수 있는 산림치유 공간이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숲에 다양한

주제의 체험 테마를 넣어 치유와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해 치유의 숲 안에 있는 치유센터에서는 교육과 상담, 건강 체크 등을 할 수 있으며, 열 치료, 반신욕 및 족욕, 차방 등 다양한 치료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장수군 치유의 숲은 와룡자연휴양림과 연계하고 있어 휴양림을 찾은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치유의 숲을 체험하고, 치유의 숲 이용객들은 와룡자연휴양림을 통해 숙박을 해결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재미를 누릴 수 있다.

복잡이는 도시, 많은 인파에 지쳐 자연의 시원함과 편안함이 있는 여행지를 찾고 있다면, 늦봄 한적하고 조용하게 나와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장수로 가보는 건 어떨까.

장수군 천천면에도 '행복나눔터'가 생겼어요~

2019년 번암면 웰컴센터를 시작으로 7개 읍·면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지난 4월 25일 천천면 행복나눔터 준공으로 마무리됐다.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천천면, 계남면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공간 조성이 이뤄졌으며, 장계면과 계북면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행복나눔터가 조성됐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군은 지난해 계남면, 계북면, 장계면 행복나눔터 조성을 완료하고 올해 천천면 하늘내 행복나눔터 준공을 완료했다.

하늘내 행복나눔터는 아동돌봄 공간인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작업장, 하늘내 카페,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천천면민을 위한 주민활동 공간으로 재정비돼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군은 천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총사업비 59억 원이 투입돼 하늘내 행복나눔터 건립과 하늘내 체육공원 시설보강 장항문화회관 조성, 하늘내 정류소 정비, 둘레길 정비 등을 완료했다.

또한 리더교육, 바리스타 전문교육, 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포럼, 문예복지 프로그램 등 지역역량강화 사업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행복나눔터
준공식



행복나눔터 준공식

행복나눔터
아이 돌봄



역사 맛집 장수, 서 말인 보석을 꿰어야 할 때

이현석 (장수군청 학예연구사)

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보기 좋게 다듬고 정돈해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그 값어치가 드러난다는 뜻이다.

장수군은 최근 10년 동안 집중적인 학술연구와 정비사업, 교육사업을 통해 지역 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많이 발굴했고, 그중 일부는 국가사적과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얼마 전 장수군 국가사적 1호인 동촌리 고분군을 찾은 한 학자는 사자성어인 '경천동지(驚

天動地,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흔든다는 뜻으로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하는 것)'라며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동촌리고분군을 비롯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변암면, 산서면, 계북면 등 장수군 7개 읍·면에는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유적지들은 장수군을 떠나 전북 동부 나아가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한 중요한 장수군의 자산이다.

장수 삼봉리고분군



장수 삼고리고분군



장수 동촌리고분군



알봉 전경



호남최대 집수시설 장수 침령산성 집수시설



합미산성

군은 소중한 지역 내 유적들을 보존하고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 꾸준히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계면 삼봉리에 자리한 백화산 고분군 일원 복원과 함께 야간경관 조명설치, 대형안내판 제작 등을 통해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이용객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또한 처음으로 장수군 가야를 알린 천천면의 삼고리고분군(전라북도기념물)도 수목제거와

탐방로 개설, 이동식박물관 설치 등 유적 공원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계남면을 대표하는 침령산성은 곧 장수군 2호 국가사적(現전라북도 기념물, 7월 국가사적 지정 예정) 지정이 확실해짐에 따라 진입로 정비와 수목 제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산서면 오성리 봉화(전라북도 기념물)는 고대 봉화 중 그 형태가 가장 온전히 남은 봉화로 그 자체만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며 장계면의 대적골 철 생산유적, 천천면의 비룡리

철 생산유적(와룡휴양림 내)은 장수군뿐 아니라 전국을 대표할만한 철 생산유적으로 당 시 장수군의 경제 생산활동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곳으로 와룡자연휴양림, 등산로와의 연계도 충분하다.

이렇듯 장수군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유적을 발굴, 정비하며 서 말의 구슬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소중한 자원들을 하나로 꿰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문화재는 ‘보호’라는 명목하에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사항이 보호 중심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호 위주에서 활용 측면까지 고려한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1997년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국가의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으로 제정된 문화유산현장이 23년만인 2020년 개정되면서 문화유산은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포용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정신이 반영됐다.

가장 보수적인 문화유산을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후손에게 오래도록 전해진다는 데에 공감하며 보호정책에서 활용까지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장수군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문화 자치, 지역문화 분권을 통해 문화적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례제정(역사문화자치 조례 등), 역사문화재정·집행의 지방 이양 요청 등을 통해 역사문화자치 및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서 말인 구슬은 꿰었을 때 그 가치가 확인되듯이 지금은 여러 방향의 진흥책을 통해 역사 맛집 장수군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장수군이 역사문화 맛집 만들기를 통해 ‘부’를 창출하고, 진정성과 역사성을 인정 받아 ‘격’을 높여, 지역민과 많은 관광객들에게 ‘역사 맛집’으로 소문나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길 기대해 본다.



오성리 봉화터



대적골 퇴척부 모습

화합과 소통의 장, 읍·면민의 날 열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장수군 곳곳에서 지역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읍·면민의 날이 열렸다. 4월 29일 변암면민의 날을 시작으로 5월 1일 장수읍민의 날, 5월 15일 산서면민의 날, 6월 7일 천천면민의 날, 6월 10일에는 장계면민의 날이, 6월 15일에는 계남면민의 날까지 차례로 진행됐다. 각 읍·면민의 날에서는 기념식을 비롯해 다채로운 공연, 체육대회, 노래자랑까지 주민들이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흥겨운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다. 오는 7월 29일에는 7개 읍·면 중 마지막으로 계북면민의 날이 펼쳐질 예정이다.

장수읍민의 날



산서면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변암면민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



장계면민의 날



천천면민의 날 및 천천면지 편찬기념회



계남면민의 날 한마음 체육대회

장수읍



장수읍 주민자치위, 충혼탑 환경정화 활동 펼쳐

장수읍 주민자치위원회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남산 충혼탑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장수읍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6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충혼탑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산서면



산서면 생활개선회, 쌀국수 35박스 기탁

산서면 생활개선회(회장 김윤희)가 산서면 사무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 전해달라며 쌀국수 35박스를 기탁했다.

기탁된 쌀국수는 지역 내 안부 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35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변암면



변암면지사협, '가정의 달, 추억만들기' 주민에 온정 전해

변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차주영, 정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달, 추억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변암면지사협은 변암초등학교 5명에게 옷을 선물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 5가구를 방문해 카네이션과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장계면지사업, 5월 가정의 달 맞아 효(孝)박스 전달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장계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신응수·임재성)는 장계면 어르신 들을 위한 '마음 가까이, 효(孝)박스' 전달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장계면지사업 위원들은 바쁜 농사일 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독거 노인, 저소득 고령인 어르신들을 위해 설렁탕, 곰탕 등 몸보신 음식과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파스, 마스크 등을 담은 효(孝)박스를 대상자에게 일일이 전달하며 건강 상태도 함께 살피며 의 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장수군 2호점 천천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 시작 알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두 번째로 천천면에서 돌봄을 시작했다.

천 천 다함께돌봄센터는 한걸음한걸음 돌봄센터가 수탁 운영하며, 초등학생 20명을 정원으로 학기 중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돌봄센터에서는 학습지도, 바깥 놀이, 책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장수군 계남면 임삼조 씨, 10년째 마을 꽃은 일 '앞장'

계남면 산불감시원 임삼조 씨가 수년째 도로 주변 환경정화 봉사는 물론 홀몸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임씨는 10여 년 전 연고도 없는 난평마을로 귀농해 낮은 지역에서 특유의 친화력과 마을의 온갓 꽃은일을 도맡아 하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삼조 씨는 "사람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작은 일 하나라도 봉사하며 스스로에게 행복함을 느낀다"며 "지역주민들을 위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주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계북면지사업, 사랑의 무료 안과 진료 자원봉사

계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황우상, 김재수)는 6월 14·15일 2일간 계북면 원양교회에서 '사랑의 무료 안과진료 봉사'에 동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랑의 무료 안과 진료봉사'는 서울 소재 의료법인 실로암안과병원 의사, 간호사 등 7명으로 꾸려진 봉사단이 지역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안과진료, 상담, 검안, 실명 예방, 간단한 처치 등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계북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들은 이날 진료시간 동안 자원 봉사자로 나서 대기자들 줄세우기, 검사 보조, 거동불편 어르신 차량 이동 서비스 등을 도우며 나눔을 실천했다.

제9대 장수군의회 소식

[2023년 상반기]



2023년도 상반기 장수군의회 회기 운영: 7회 개회, 54건 의결

<조례안 38건, 규칙안 2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3건, 예산안 6건, 결의안 1건>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는 2023년 1월 4일에 제34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6월 제35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까지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38건, 규칙안 2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예산안 6건, 결의안 1건 등 총 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2023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는 1월 9일 제345회 임시회를 열어 1월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청취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불합리 하거나 낭비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 결의문 채택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4월 11일 제348회 임시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국제사회와 협력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의결했다.

■ 상임위원회 활동

행정복지위원회

40건 심의·의결

[조례안 33건, 규칙안 2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3건]



최한주 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최한주)는 총 5번의 회의를 개최해 장수군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33건, 규칙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2건 등 총 38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9건 심의·의결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김광훈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광훈)에서는 총 6번의 회의를 개최해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 의원 발의 조례: 14건 의결

장정복 의원 (5건)

- 장수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장수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장수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종섭 의원 (1건)

-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최한주 의원 (2건)

-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광훈 의원 (2건)

- 장수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장수군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김남기 의원 (2건)

-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
- 장수군 청렴도 활성화 조례



김남수 의원 (2건)

-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장수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의원별 5분 발언



유경자 의원은 제345회 임시회(23.1.10.)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공원시설 전반에 걸쳐 군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공원시설 관리를 일원화해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수시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채용할 것과 마을공원 실태를 조사하여 방치된 곳을 신속하게 재정비 할 것”을 요구했다.



김광훈 의원은 제347회 임시회(23.2.28.)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장수군의 강점인 농생명 및 산림관광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발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수군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TF팀과 자문단 및 특례사업발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수 의원은 제348회 임시회(23.4.11.)에서 “현재 요양병원이 없어 인근 시·군의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시간적,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며, “치매질환의 집중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 치매형 공공요양병원을 건립하여 우리 군 공공의료복지 수준을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최한주 의원은 제350회 임시회(23.5.24.)에서 레드푸드 융복합센터를 관광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레드푸드 융복합센터에 위치한 만남의 광장을 활용하여 청년야시장 같은 행사를 개최하고 이천오감 힐링투어 패스, 장계시장 등을 연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 특별위원회 운영과 활동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 관내 13개 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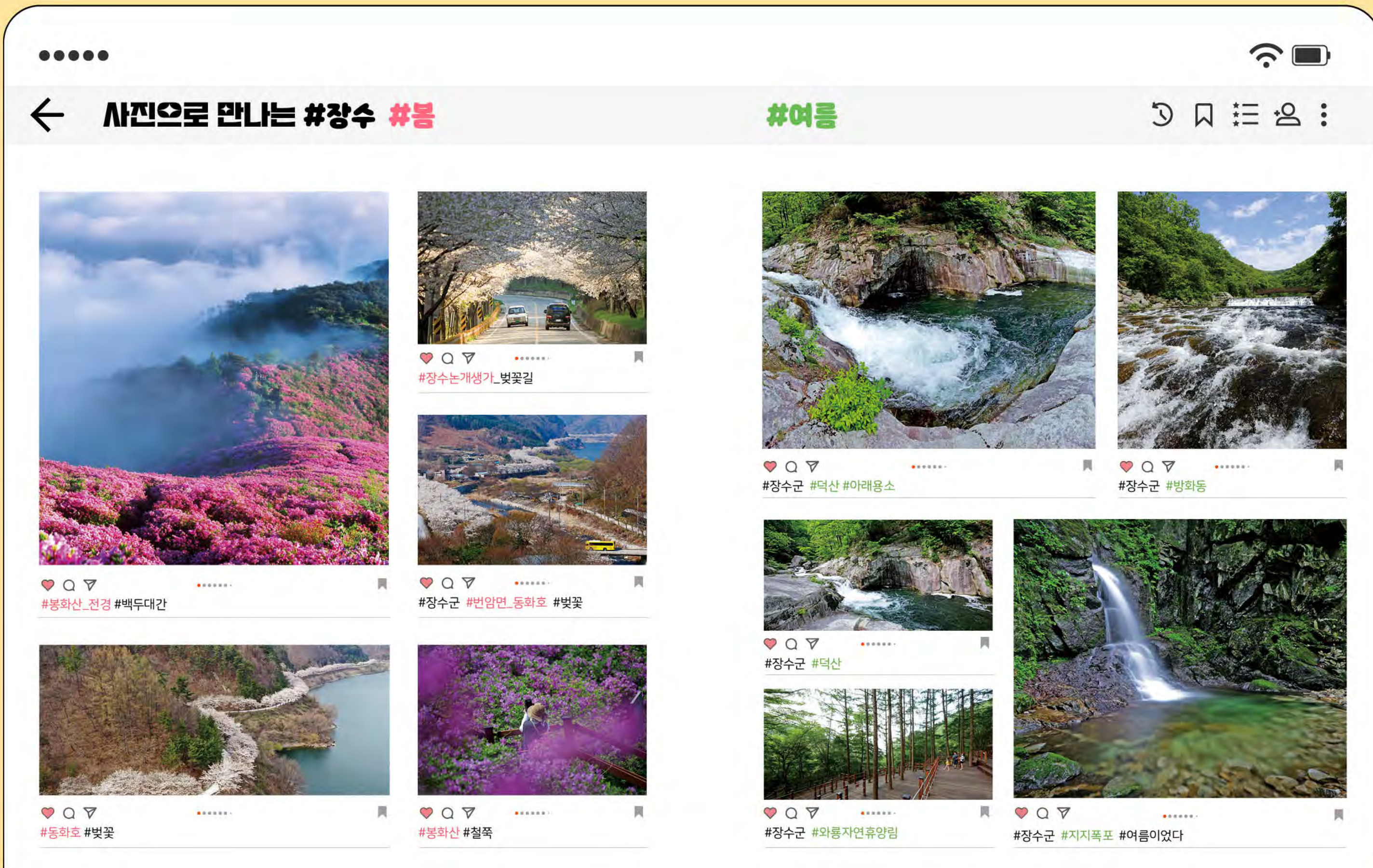
장수군의회는 제3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훈)를 열어 장수누리파크 자연놀이터 조성사업 현장 등 관내 13개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효과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인 내용을 조사하였다. 특별위원회는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을 통해 사업 현장의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직접 듣고 사업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과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장수군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추경예산안 심사 2건,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1건



조성사업등을 포함한 494,818,565천원으로 의결을 하였으며, 제3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안을 심사하고, 최종 의결하였다.

2023년도 상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회 개최 하였으며 제346회 임시회 기간에 열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지원금 및 저소득층 긴급난방비 지원예산등이 포함된 468,699,096천원으로 의결하였고, 제348회 임시회 기간에 열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북형 귀농귀촌 보급자리



고향에 기부하고 혜택받자!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 시행일시 : 2023. 1. 1.부터 시행

♥ 기 부 처 : **개인**(법인은 기부 불가)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 가능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혜택

1.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체 공제 / 10만원 초과시 16.5%



※**고향사랑기부금**은

복지, 문화, 예술 등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답례품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판로 확대)